

尹 위법적 '계엄 사태' 후폭풍...정국 대혼돈

野 5당尹퇴진 총공세 "비상계엄, 내란죄 단죄" 李 "북한 자극 충돌 위험" 愾 "전쟁 버튼 우려" 與 대응 부심...尹 대통령 출당'은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가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및 탄핵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사국대회'에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추키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은땀을 뚫어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물음처럼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위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법률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난입해 내란 죄를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통령이라 해도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그야말로 전전긍긍이다.

이러 "세 번째 제안(대통령 출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

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인데, 야당 만으로는 192석으로 8석이 부족하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친한계 의원은 18명이었다.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출당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김용현 해임), 두 번째 제안(내각 총사퇴)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러 "세 번째 제안(대통령 출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탄핵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김민석의 과거 발언 주목

야당서 사실상 처음 계엄령 의혹 제기... "근거 있는 확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애초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내정했을 때다.

김 최고위원은 8월17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2일 정해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렇수록 김 최고위원은 더 강하게 '계엄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청사령관 등 대통령과 총참모장 동문인 군인 사들의 계엄 음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지속해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9월20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포고문은 그동안 있었던 역대 계엄의 포고문과 다르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큰 차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참모(총참모 출신)를 (오직) 재배치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진석 등 3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

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순연했다. 이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정된 첫 공개 일정으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여야비상계엄 후속대응방향

국민의힘 <small>정경</small>	민주당 <small>대통령</small>
김용현 국방부장관 해임 등 책임자 문책	윤 대통령·김용현 국방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상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공식화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	*야6당
결론 못남	1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국회 제출 (5일 보고, 6~7일 표결 예상)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에 따른 탄핵안 가결 필요의석수

국민의힘 의총 192석	재적의원 2/3-200석	대통령 탄핵소추 처리 가능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 *개혁신당 3	*더불어민주당 170	200석 이상
의석수 300석	국민의힘 108	재적의원 2/3

국민의힘 이태표,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 18명 탄핵 찬성시 가결 가능(이태표 최소 8표 필요)

재적의원 2/3(200명) 탄핵소추 찬성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자료: 국회, 각당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장민석(700823-1-*****)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4년 단4536 상속한정승인
○공 고 안: 장하미
○한정승인수리일: 2024년 11월 29일
○공고기간: 2024년 12월 5일 ~ 2025년 2월 5일
○연 락 처: 서울 금천구 두산로 5-8, 101동 1108호 (독산동) (010-9769-0410)

화정동 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 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 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 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 3.3당 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가능) 급급매 30억
***국내최대동물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시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